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 사랑의 비스코티

내일 밤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중 나갈 채비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한 해 중 대림 시기가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점 사도직 특성상 삶에서 오는 피곤함을 기꺼이 봉헌하고 저의 부족함을 보속의 정신과 기도로 채우며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서점이 시작된 지 벌써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 이를 먼저 기억하고 챙겨주신 분은 원장 수녀님과 주방 수녀님이셨습니다. 주방 수녀님이 처음 인터넷 서점을 시작한 장본인이시거든요. 올해 성탄 이벤트는 이태리 쿠키인 ‘비스코티(biscotti)’입니다. 선교사로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원장 수녀님이 어느 해 처음 만들어 주셨는데 바삭 바삭한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비스코티는 다른 쿠키와 달리 오븐에 두 번 굽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인터넷 서점 회원을 위해서도 꼭 한 번 쿠키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주방 소임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원의 바쁜 살림과 대식구를 위해 매 끼니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덩으로 쿠키를 굽다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기꺼이 반죽을 준비해 주신 수녀님과 함께 쿠키를 구워주신 수녀님들 또 예쁘

게 포장해 주신 수녀님도 고맙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구유 예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치를 이루며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과 피곤을 봉헌하며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들... 때로는 공동체 생활 자체가 힘겹고 십자가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함께 하기에 힘든 일도 쉽게 넘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신비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송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다” 고요.

큰 빛이 오십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하늘을 열고 오십니다. 그분은 선물처럼 우리 기다림을 채워주셨습니다. 안드레아 슈바르츠는 「성탄이 왔다!」에서 신비이신 하느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자고 초대합니다. 이 신비를 내 삶 속으로 모셔올 때 비로소 성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탄 장식 3종 세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예부터 교회는 성탄을 맞이 위해 세 가지 의미 있는 장식을 합니다. 첫째 대림환, 흔히 사철나무 가지를 등글게 말아 그 위에 초 네 개를 올려놓습니다. 둥근 대림환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푸른 잎과 촛불은 한겨울을 건디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초는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흰색으로 커나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상록수를 쓰는 것은 늘 푸른 나무가 건장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구유 또는 마구간, 성탄 시기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로 성당 안이나 마당에 설치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